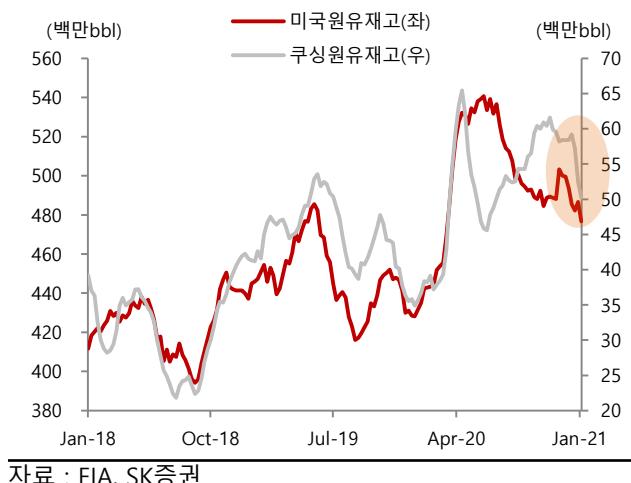




WTI 반등을 제약하고 있는 브렌트?

- ▶ 최근 계속되는 원유 지표 개선세에 특히 금주 재고급감 호재에도 불구하고 유가보합권. 여러 원인 지적되지만 WTI-브렌트의 좁아진 스프레드도 부담될 것. 현재 지지선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WTI 상승부담요인으로 작용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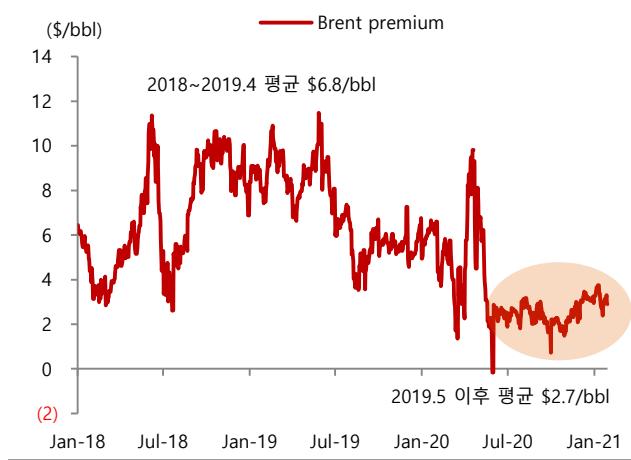
최근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원유관련 재고



자료 : EIA, SK증권

- 주간으로 발표되는 EIA의 미국 원유관련지표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
- 무엇보다 쿠싱재고가 급락 중입니다. 5,022만bbl로서 전주대비 -4.3% 하락했는데, 3주 간으로 치면 -15.2%입니다. 원유재고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절대수치로는 2020년 4월 이후 최저네요
- 일단 재고부담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가격하락압박에서 많이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해석으로 연결 가능합니다. 특히 부담이었던 쿠싱재고의 급락은 더욱 그런 측면을 부각시키지요
- 뿐만 아니라 정유설비 가동률도 소폭 하락했지만 81.5%로서 회복세가 유지 중이고, (코로나19 여파로 68%까지 하락). 산유량 역시 6주 연속 1,100만b/d에서 1,090만b/d로 소폭 하락했습니다

다만 브렌트와 확연히 줄어든 가격 격차는 WTI에 부담



자료 : Bloomberg, SK증권

-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WTI는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습니다
- 해외 언론 역시 재고급감에도 불구하고 상승하지 못한 유가에 많은 의문을 표했는데요, 일단 주식시장 급락과 코로나19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
- 하지만 다른 생각도 하나 해볼 수 있는데요, 바로 WTI와 Brent의 spread(격차)입니다
- 세일혁명 이후 美 원유생산이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WTI(미국) 가격이 Brent(유럽)보다 낮게 형성되었죠. 실제로 2018년부터 2019년 4월까지 Brent premium은 약 \$6.8/bbl이었습니다
- 하지만 2020년 5월 이후는 \$2.7/bbl에 불과합니다. 코로나19 이후 美 산유량이 급감했기 때문에 많이들 해석하고 있죠
- 다만 美 산유량은 언제든 회복될 수 있기에 유종간 역전은 의문을 표하고 있고, 실제로 2달러대가 지지선으로 작용 중입니다. WTI의 상방이 \$50/bbl 초반에서 막힌 건 이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?

•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 •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시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 •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 •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 • 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

